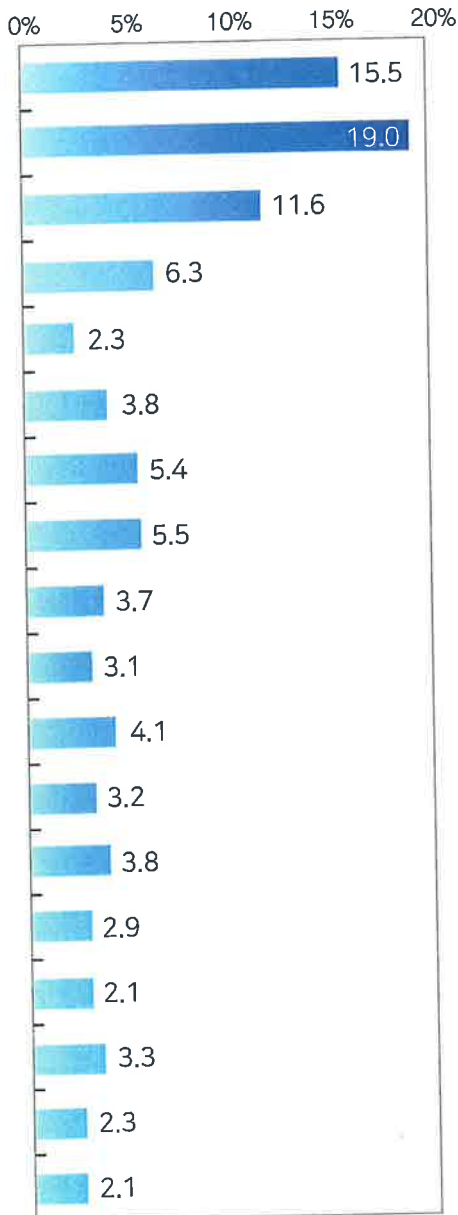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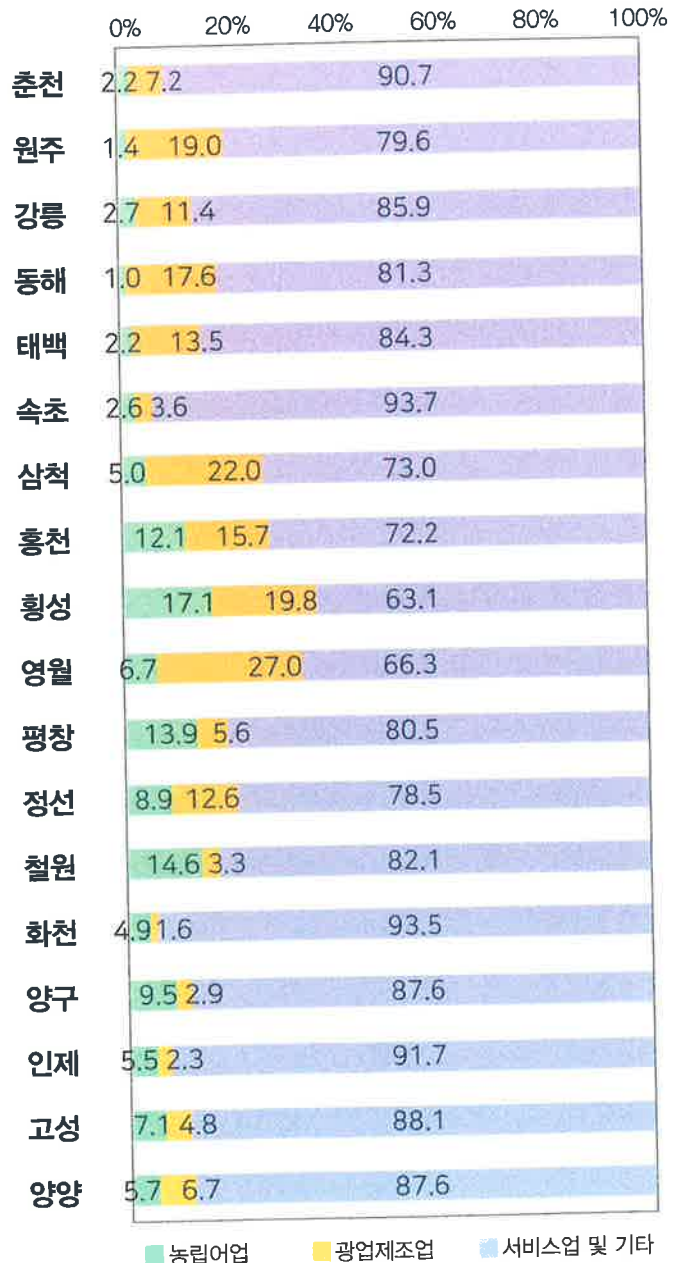


지역내총생산의 시군별 구성비 및 산업구조

지역내총생산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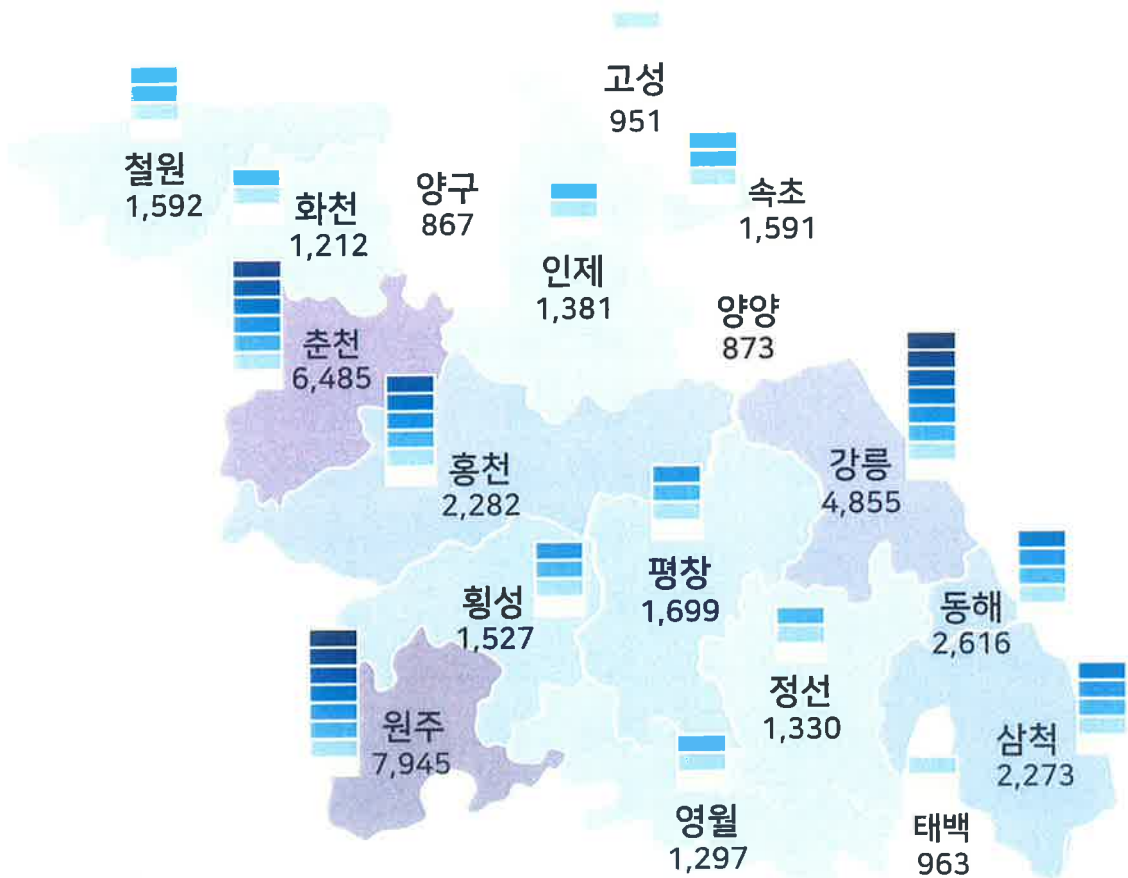


시군별 산업구조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규모



(단위 : 10억원)



chapter

I

2016년 지역내총생산 추계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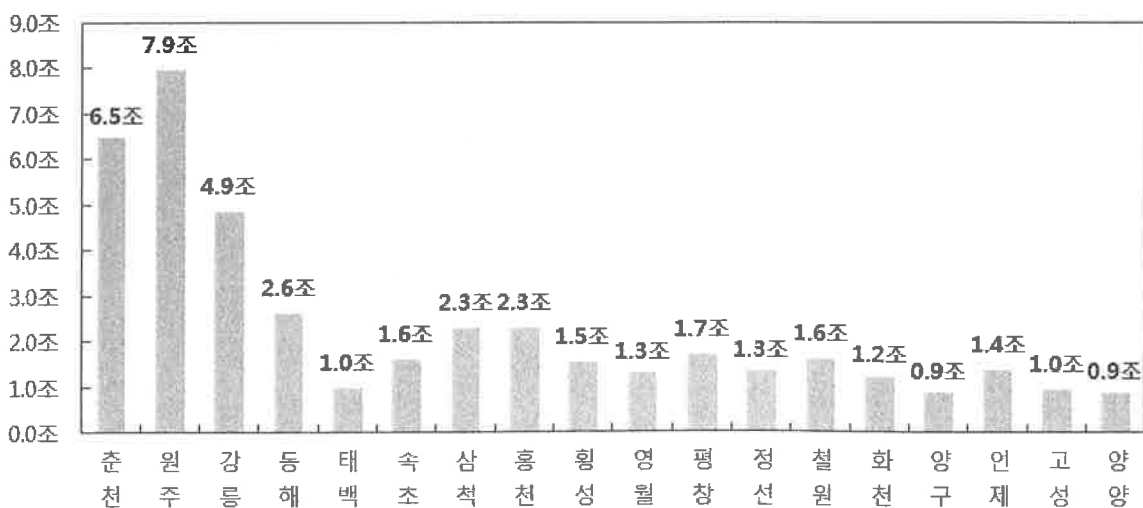
1. 지역내총생산 규모 (당해년 시장가격)
2.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연쇄가격 기준)
3. 시군별 및 경제활동별 구조



1. 지역내총생산 규모 (당해년 가격)

- 2016년도 18개 시군의 지역내총생산은 41조7,382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2조1,726억원 증가
 - 7개 시지역의 총생산은 26조7,274억원으로 도 전체의 64.0%, 11개 군지역 총생산은 15조108억원으로 36.0%를 차지
- 시군별로는 원주, 춘천, 강릉 등 3개 시의 생산액이 도 총생산의 46.2%를 차지
 - 상위 3개 지역 : 원주(19.0%), 춘천(15.5%), 강릉(11.6%)
 - 하위 3개 지역 : 양구(2.1%), 양양(2.1%), 고성(2.3%)
- 총생산 규모는 평창(21.3%), 속초(11.9%), 정선(9.4%), 강릉(8.2%) 등 16개 시군에서 증가했고, 삼척(-10.7%), 동해(-2.6%)는 전년도에 비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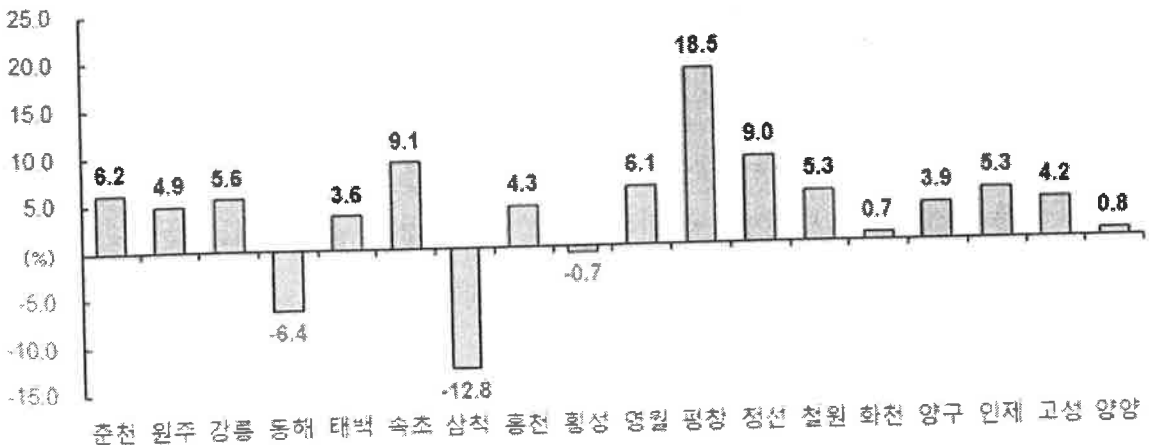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규모 (당해년 가격)】



2. 지역내총생산 성장률 (연쇄가격 기준)

- 2016년 18개 시군 전체의 실질 지역내총생산은 2.8% 증가하여 전년도(3.3%)에 비해 성장률이 감소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10.1%), 건설업(7.6%), 광업(7.0%) 부문은 성장률이 높았고, 운수업(-1.2%), 부동산업 및 임대업(-1.0%), 교육서비스업(-0.5%)은 성장률이 낮았음
- 시군별로는 건설업, 제조업, 공공행정·국방, 광업, 보건·사회복지 등의 업종에서 호조를 보인 평창, 속초, 정선, 춘천, 영월의 성장률이 높았고, 삼척, 동해, 횡성, 화천, 양양 등의 지역은 건설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수도업 등의 부진으로 성장률이 낮았음
 - 성장률 높은 지역: 평창(18.5%), 속초(9.1%), 정선(9.0%), 춘천(6.2%), 영월(6.1%)
 - 성장률 낮은 지역: 삼척(-12.8%), 동해(-6.4%), 횡성(-0.7%), 화천(0.7%), 양양(0.8%)
- 高성장 시군 주요 증가 업종
 - 평창 : 건설업(81.4%), 제조업(47.4%), 공공행정·국방(9.1%)
 - 속초 : 건설업(47.5%), 제조업(34.3%), 운수업(16.2%)
 - 정선 : 건설업(52.0%), 제조업(34.0%), 광업(18.1%)
 - 춘천 : 건설업(86.5%), 제조업(21.2%), 보건·사회복지업(9.8%)
 - 영월 : 건설업(25.1%), 제조업(19.7%), 농림어업(16.7%)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성장률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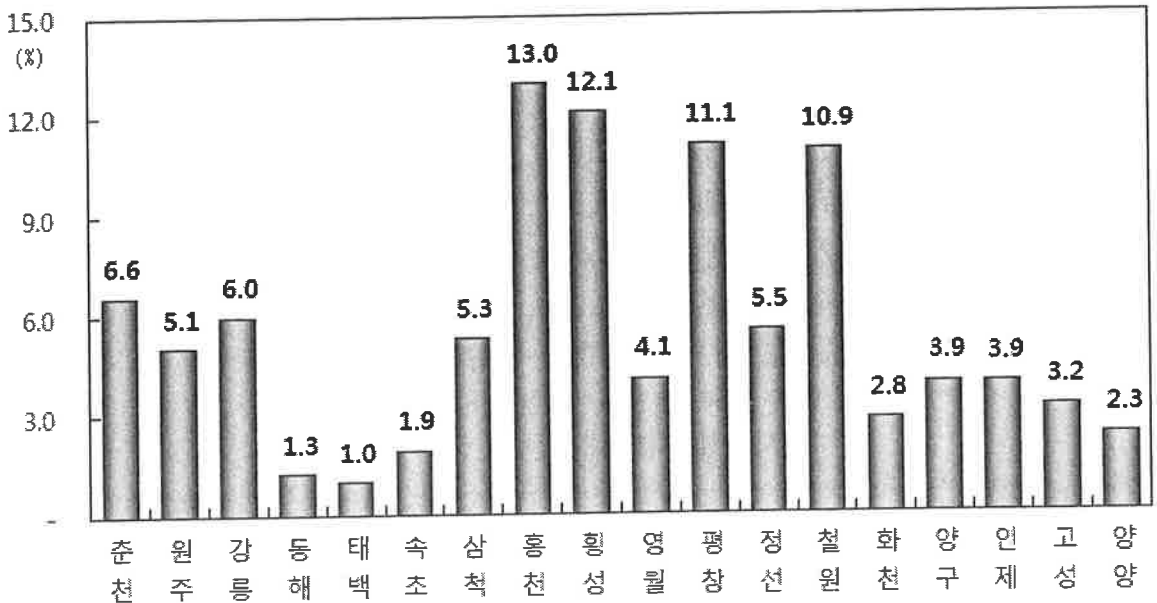
주1) 연쇄지수에 의해 작성된 성장률이며, 지수 기준년은 2010년임

3. 시군별 및 경제활동별 구조

(1) 농림어업

- 농림어업 총부가가치의 시군별 비중을 보면 홍천(13.0%), 횡성(12.1%), 평창(11.1%), 철원(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과 비교하여 농림어업의 시군별 구성비가 증가한 지역은 평창(1.3%p), 영월(0.8%p), 홍천(0.7%p) 등 9개 시군이며, 횡성(-1.3%p), 원주(-0.6%p), 정선(-0.5%p) 등 9개 시군은 구성비가 감소함

【농림어업 시군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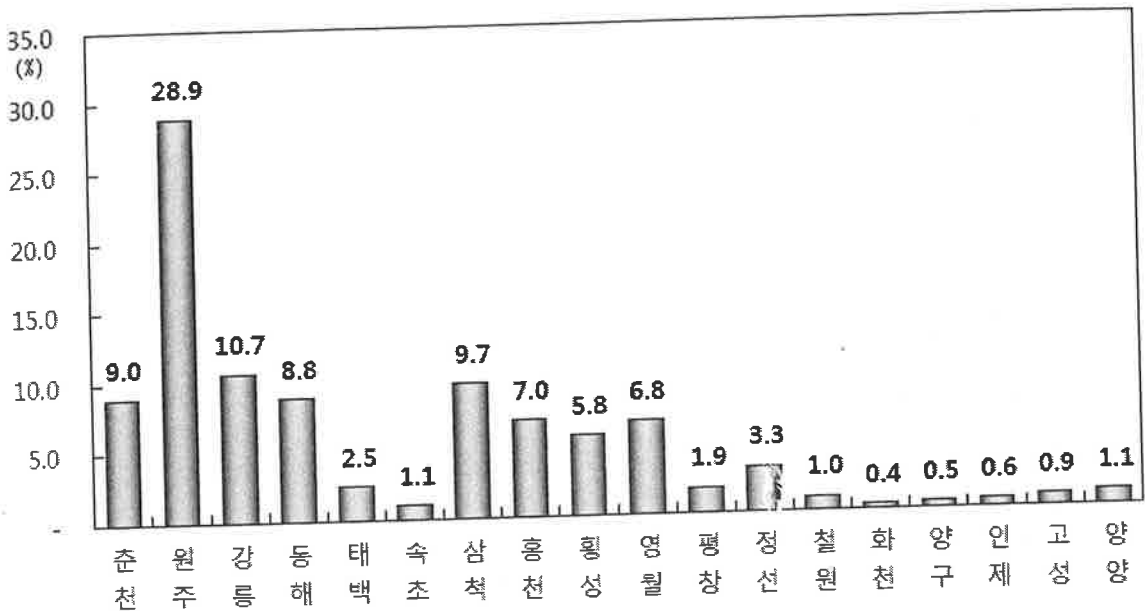
- 지역내에서 산업별 농림어업 구성비 변화를 보면, 삼척, 영월 등 5개 시군은 농림어업 비중이 확대되었고 횡성, 정선 등 13개 시군은 비중이 축소되었음

	2015년		2016년	증가		2015년		2016년	감소
• 삼척	4.2%	→	5.0%	0.8%p	• 횡성	19.3%	→	17.1%	-2.2%p
• 영월	5.9%	→	6.7%	0.8%p	• 정선	10.6%	→	8.9%	-1.8%p

(2) 광업 및 제조업

- 광업 및 제조업 부문에서 각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주(28.9%), 강릉(10.7%), 삼척(9.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전년 대비 시군별 구성비 증감을 보면, 구성비가 증가한 곳은 춘천(1.1%p), 강릉(1.1%p), 홍천(0.5%p) 등 11개 시군, 구성비가 감소한 곳은 삼척(-2.0%p), 동해(-1.6%p), 횡성(-1.0%p) 등 7개 시군임

【광업 및 제조업 시군별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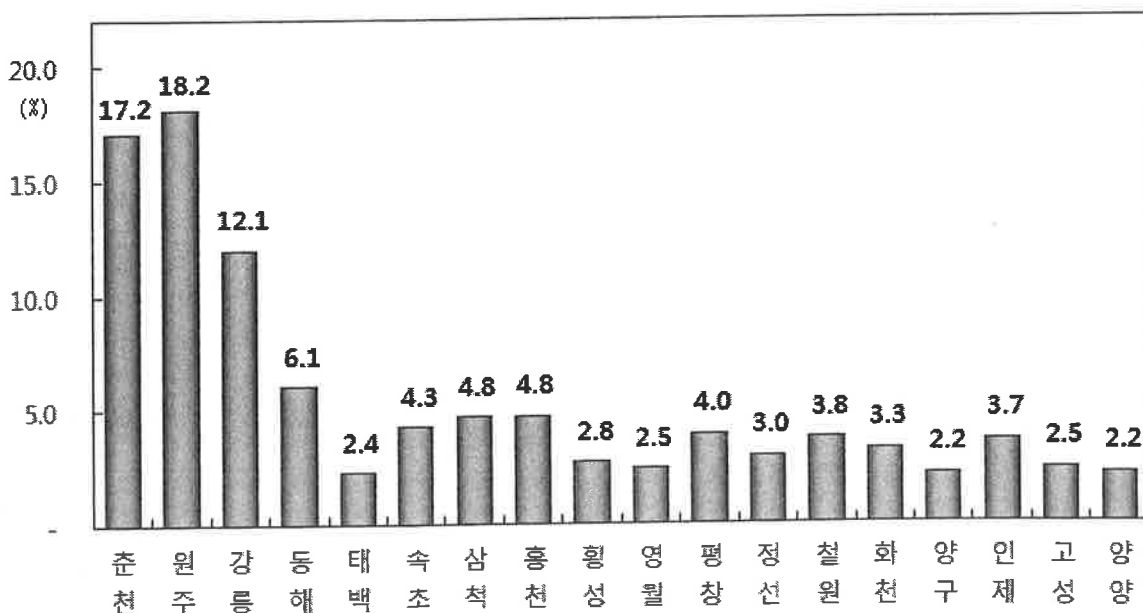


- 도 전체 산업에서 광업·제조업 부문의 구성비는 2015년 12.2%에서 2016년 12.4%로 0.2%p 상승
 - 지역내에서 광업·제조업 생산비중이 큰 시군은 영월(27.0%), 삼척(22.0%), 횡성(19.8%), 원주(19.0%), 동해(17.6%) 등이며,
 - 화천(1.6%), 인제(2.3%), 양구(2.9%), 철원(3.3%), 속초(3.6%) 등은 지역내에서 광업·제조업 비중이 적은 지역임

(3)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을 제외한 부문)

- 2016년도 도내 총부가가치 중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대비 0.1%p 증가한 82.5%임.
-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의 생산액 중 각 시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원주(18.2%), 춘천(17.2%), 강릉(12.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의 전년 대비 시군별 구성비 증감을 보면,
 - 구성비 증가 3개 시군 : 평창(0.5%p), 춘천(0.3%p), 속초(0.2%p)
 - 구성비 감소 3개 시군 : 삼척(-1.0%p), 동해(-0.4%p), 철원(-0.1%p)임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 시군별 구성비(%)】



- 시군의 산업별 구성비 중 서비스업 및 기타 부문의 비중이 높은 지역은 속초(93.7%), 화천(93.5%), 인제(91.7%) 등의 순이며,
 - 횡성(63.1%), 영월(66.3%), 홍천(72.2%)은 서비스업 및 기타부문의 비중이 낮은 지역임